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초록의 행동, 필리핀 청소년들과 함께 시작하다

Cabanatuan city에 메아리 친 'Heal the world'



지난 6월 4,5일, 라온아띠 단원들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그 것은 그들이 Raonatti of Nueva Ecija 청년들과 함께 하는 첫 활동이었기에 많은 계획과 준비단계가 필요하였고, 때문에 적어도 매주 1회씩 모이는 회의를 거쳐서 캠페인이 준비되었다.

캠페인은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4일에는 '행동'과 '상징'을 중심으로 표현한 사전캠페인을 카바나투안Cabanatuan 중앙시장에서 진행했으며, 5일에는 '실천'을 중심으로 내세운 본 캠페인을 아이타Aeta 지역에서 진행하였다.

4일에 진행된 '사전캠페인'은 '행동'을 키워드로 내세워 '플래시몹'을 Cabanatuan 중앙시장에서 진행하였고, Raonatti of Nueva Ecija 멤버 중 기타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Efren, Ian, Jomar을 선두로 기타선율과 함께 갑작스레 노래가 시작되면 시간 차이를 두고 어디선가 한 명씩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하는 식으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활기찬 시장 내의 분위기에 촉매제로 작용해 마치 미니콘서트처럼 더욱 더 역동적으로 진행되었고, 지나다니던 사람들과 많은 상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송 중 하나인 'Heal the world'의 노랫말을 'There is global warming if you do nothing for a change'로 개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350ppm 캠페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찾아 다니는 공연단 처럼 노래한 그들의 영향으로 시장 이곳 저 곳에서 'Heal the world'의 노랫가락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시장에서의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끝난 후, 그들은 Raonatti of Nueva Ecija 멤버들을 주축으로 하여 valle cruz 지역을 찾아가 '350 희망나무' 제작을 위한 '350 희망의 메시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받기도 하였다.

한편, 라온아띠 5기 필리핀 팀과 Raonatti of Nueva Ecija가 함께 세상에 소리쳤던 환경캠페인은 <<http://www.youtube.com/watch?v=r3eSSxX81L4>>와 <<http://www.youtube.com/watch?v=x9TKggPxJ3g>>에서 동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커버스토리 -----	1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초록의 행동, 필리핀 청소년들과 함께 시작하다	
6월의 일상 -----	3
라온아띠 무사히 중간평가를 마치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다.	
라온아띠, YMCA 환경 미화에 맨손으로 바위까지...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 - 라온아띠 350 ppm 본 캠페인 아이타Aeta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다	
라온아띠, Fun Run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특집> Raon atti of Nueva Ecija -----	5
<이 달의 인물> Raon Atti of Nueva Ecija를 소개합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한 소중한 첫 발	
[interview] 라온아띠 of Nueva Ecija를 말하다	
우리들의 뜨거운 밤을 위하여 - 라온아띠, 콘서트 준비에 여념이 없어	
7월의 일상 -----	8
우리의 목소리가 카바나투안에 퍼지다	
Raonatti NE 성공리에 Workshop 마쳐	
자칭 미식가 5형제. 치킨에 도전하다!	
오피니언 -----	16
새벽 2시 40분, 내가 아직도 깨어있는 이유	
Gilbert T. Gonzales(Member of Raon atti NE)의 에세이	
꽃처럼 짧고, 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청춘의 어느 날	
I'm very masaya(나는 너무 행복해)	



라온아띠 무사히 중간평가를 마치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다.

6월 5일, 한국에서 라온아띠 필리핀 팀의 활동을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한국 YMCA와 KB 관계자들이 카바나투안을 방문했다.

라온아띠 단원들이 현지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3개월.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평가는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단원들에게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중간평가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보다 한국에서 우리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설렘과 반가운 마음이 더 컸다.'고 단원들은 그 때의 심정을 전했다.

오전 10시경 숙소를 방문한 평가단은 집안을 둘러보고 현지생활에 대한 간단한 답소를 나눈 뒤에 활동 보고회를 위해 모처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무엇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어Nothing`s gonna stop us'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누구인지Who are we?'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Where are we?'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Where are we going?'를 차례로 설명해나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간의 활동의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후속 활동인 Raon Atti of Nueva Ecija 조직 활동은 보고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국 YMCA 연맹 송진호 실장은 '일 방향의 수혜관계를 넘어서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라온아띠 필리핀 팀의 활동은 참 반갑다.'고 말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는 그간 연습해왔던 기타 솜씨를 뽐내며 작은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보고회장은 YMCA of Nueva Ecija 이사회 구성원들과 YMCA of Philippines 사무총장 엘씨Elsie 및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평가단들의 칭찬과 격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보고회를 마치고 6월 5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팔라얀 시티, 아이타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나무심기 행사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평가단과는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온 반가운 손님, 그리고 현지 활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중간평가는 그렇게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라온아띠, YMCA 환경 미화에 맨손으로 바위까지...



매일 비 때문에 빨래도 못하는 6월 중순,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라온아띠가 맨손으로 돌덩이와 사투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라온아띠 단원들은 YMCA 건물 주변 환경 정리에 발 벗고 나서기 시작. 첫날 그들이 한 작업은 환경을 정리한 후 나무를 심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그들은 기존의 마구잡이로 자라있던 잡로들을 베어내고 한번도 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 보이는 나무 가지들을 정리했다. 높낮이가 맞지 않아 땅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전 체육관 건물을 허문 잔해들을 맨손으로 옮기는 등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이 작업은 어느새 그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그치지 않아 환경 정리 작업에 착오가 생길 법도 했으나 그들은 3일 동안, 계획된 일들 중 반 이상의 작업을 해냈다. 한편, 일을 하는 동안은 땀에, 밥을 먹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시에는 비에 항상 젖어 있어야 했던 라온아띠 단원들. 앞으로 3개의 태풍이 몰려올 이 곳 필리핀에서의 여름을 잘 견뎌내고 무사히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

라운아띠 350 ppm 본 캠페인 아이타Aeta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라운아띠는 아시아 5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단원들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귀국단원들과 함께 350ppm 공동행동을 하기로 약속했다.

라운아띠 필리핀 팀 단원들은 전날의 사전 거리 캠페인에 이어서(1면 기사 참조)팔라얀 시티Palayan city 아이타 커뮤니티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시도

팔라얀 시티의 아이타 부족 거주지역에서는 치토Chito 신부와 주민들이 가꾸는 유기농 농장이 있다. 그 곳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1000헥타르 가량 되는 작은 농장이지만 그 곳에서는 십만 개가 넘는 다양한 나무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작지만 큰 시작, 자기만의 속도로 쉬지 않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걸음처럼 이어가는 치토 신부와 주민들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라운아띠 단원들과 라운아띠 누에바 엘시자 단원(필리핀 청소년)들, 필리핀 시민들, 중간평가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 관계자들 모두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을 찾아 350ppm 행사를 진행 하게 되었다.



사전 캠페인을 통해 300여명의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개인의 실천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350희망나무’를 이 곳에도 펼쳐 보이며, 이곳의 주민들과도 의견을 나누며 환경에 대한 마음을 모았다. 또한 숲 친구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친구로서 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심기를 진행했다. 손에 손을 잡고 강을 건너 산에 올라가 백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환경, 그리고 지구라는 단위의 고민은 개인에게 하여금 쉽게 범접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나 하나’가 거대한 ‘환경’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이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작은 행동이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시작한 이 작은 실천은 분명히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라운아띠 필리핀 팀 단원들과 필리핀의 시민들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뜻 깊은 시작을 했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라운아띠, Fun Run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지난 6월 25일, 라운아띠 팀은 YMCA와 Playan city, Brangay E partnership, Krusada sa kalikasan이 공동 주관한 Fun Run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환경보전 프로젝트 위한 모금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기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5km의 마라톤 프로그램과 나무심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행사 당일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마라톤 프로그램은 취소가 되었고, 나무심기 프로그램만이 진행되었다.



'One billion tree Project'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나무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라운아띠 단원 및 Raonatti of Nueva Ecija 멤버들은 새벽부터 Playan city에 위치한 Aetas지역으로 출발하였고, 억수같이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종을 심었다. 또한, 환경캠페인의 연장선으로 Playan city 및 YMCA, Krusada sa kalikasan 관계자들은 'Let's get back to 350ppm'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즉석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라운아띠 이수진 단원은 '도로가 잠길 정도로 쏟아 내리는 빗속에서도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들에게 감탄하였고, 비록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에 너무나 보람차고, 기쁘게 느낀다.'라고 말을 전했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이 달의 인물> Raon Atti of Nueva Ecija를 소개합니다



이름: Perry
 학교: Wesleyan university
 전공: Electronics
 특기: 조직을 이끄는 추진력,
 일명 불도저

페리, 나이 17살. 외모면 외모, 요리면 요리, 일이면 일, 못하는 게 없는 엄친아로 불리는 워크캠프의 일등공신이다. 그는 라온아띠 5기 필리핀팀이 조직한 라온아띠 누에바엘시야 (이하 Raonatti NE)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직을 이끄는 추진력은 단연 최고다. 그는 작은 것 그리고 단순한 것들에서부터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 하는데 힘쓰고 싶어 새로 조직된 RaonAtti NE에 조인Join하게 되었다.



이름: Efren
 학교: Nueva ecij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전공: B,S,C,E
 특기: 심금을 울리는 기타연주

우리의 든든한 만형 Efren. 21살인 그가 만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지 나이뿐만은 아니다. 생각이 깊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순수한 청년 Efren. 그는 필리핀의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국가 필리핀이 하나가 되는 날을 꿈꾸며 RaonAtti NE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름: Kimberlyn
 학교: San Joseph national high school
 특기: 걱정쟁이 (worrier)

16세 꿈 많은 소녀 킴. 그녀는 조직의 막내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득표를 얻어 이 조직의 서기로 선출되었다. 아마도 다른 멤버들은 그녀가 사람을 사귀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이어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그녀의 성격을 벌써 간파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돕고자 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그녀의 참여 이유를 얘기하며 그녀가 앞으로 하게 될 활동들을 통해 필리핀의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싶다고 그녀의 작은 소망을 전했다.



이름: Ian
 학교: Nueva ecij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전공: B,S,C,E
 특기: 좌중을 압도하는
 베이스 기타 연주

18세 뜨거운 청년 Ian은 워크캠프 때부터 함께 했던 Perry, Efren, 그리고 Jomar 4총사 중 한 명이다. 그의 특기는 베이스, 그러나 그의 주특기는 몸으로 하는 막일로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일을 그렇게 야무지게 한다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이 조직에 함께하기를 결정했으며 그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이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웠던 세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조직에서 아주 활동적인 멤버들 중 한 명이다.



이름: Jomar
 학교: Nueva ecij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전공: B,S,I,T
 특기: 눈썹으로 대답하기
 & 눈웃음

이름은 조말, 우리들 사이에서 별명은 조랑말, 그의 외모가 말과 닮기도 했지만 이름이 말과 닮기도 해서 지어졌던 별명. 그러나 조랑말이라고 부를 때마다 현지 친구들은 마치 그의 외모가 말과 닮았다는 것에 무언의 동의라도 하듯 웃음을 피식거린다. 닮긴 닮았다. Efren, Ian과 함께 기타를 가지고 놀 줄(?) 아는 멤버로 그는 스스로가 Mother Earth를 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나무심기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길 바라며 이 단체에 조인했다.



이름: Kelvin
 학교: Nueva ecija high school
 특기: 멍 때리기

Kim, Gilbert와 함께 Valle cruz youth로 4월에 있었던 Day care center에서의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게 도와준 핵심 멤버이다.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되는 것이 꿈인 18세 평년. 내가 그에게 왜 이 조직에 들어오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너무나 솔직한 대답으로 모두를 당황시켰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대답은 자신이 왜 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그 답을 앞으로의 활동들을 통해서 꼭 찾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RaonAtti Ne멤버로서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이름: Gilbert
학교: Wesleyan university
전공: Philosophy and Psychology
특기: 묵묵히 자기일 하기

Kim, Kelvin과 함께 Valle cruz 멤버로 불리는 길버트. 그는 덩치에 맞지 않게 너무나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무언가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청년이다. 맨날 킴과 티격태격. 그러나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챙겨주는 든직한 오빠다.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 항상 맡은 바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Raonatti Korea 다섯명.

언제나 그 존재 자체 만으로도 든직한 리더 상업. Friend of local people 특히 아이들과의 교감은 기가 막히게 하는 엉뚱함을 즐기는 소녀 민경. 웬만한 건 푹푹푹 잘 해내는 킬러스마일 진영. 체대라 그런지 군기가 너무 잘 들어있는 우리 팀 마스코트 귀염둥이 막내 현경(하지만 그 군기로 언니 오빠들을 압도한다는...). 그리고 마지막 볼수록 매력적인 나, 이수진*^^*



이름: Regina
학교: Wesleyan university
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특기: 아이패드로 좀비게임하기

교사인 어머니의 슬하에서 곱게 자란 부잣집 막내 딸 같은 그녀. 그러나 그녀가 전문적인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았던 high Y의 회장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게임을 좋아하고 엉뚱해 보이는 이 여리고 고운 소녀가 어느새 Raonatti NE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으로 Raonatti NE의 부회장으로서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더 큰 미래를 위한 소중한 첫 발



라운아띠 누에바에시아(RaonAtti of Nueva Ecija, 이하 라운아띠NE) 조직 이 후,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6월 4일과 5일, 양일간 누에바에시아, 아이타 커뮤니티에서 환경 캠페인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로서 전 지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지구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6월 5일 하루만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비단 필리핀뿐 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짐.) 이에 라운아띠NE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그들 스스로의 소정의 목적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6월 4일, 15명 가량의 젊은 청년들은 전 날 밤 늦게까지 준비한 350PPM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YMCA 본부에서부터 재래시장까지 행진하였다. 이 날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라운아띠NE의 활동과 환경에 관한 관심을 보이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둘째날(5일), 2차 캠페인은 아이타 커뮤니티에서 진행되었다. 치토 신부님의 사업장에서 약 5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각자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플래시 몹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모두 유튜브에 게재되어 좀 더 폭 넓은 층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경 단원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지역 청년층과 함께 협업하여 진행한 점이 좋았다'

환경 문제라면 어렵고 변화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작은 활동이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여 이번 프로그램이 단원 개개인에게도 의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그들의 캠페인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라운아띠 중간 평가가 접친 관계로 시간상 한 곳에서만 캠페인을 진행한 점, 준비기간이 충분치 못 해 좀 더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찾지 못한 것이 그 것이었다. 라운아띠NE는 환경의 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니 이번 캠페인을 바탕으로 아쉬웠던 점을 보완, 좋았던 점을 강화하여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기를 바래본다.

이번 캠페인을 마친 라운아띠NE는 오는 7월 22일에 있을 콘서트 기획과 공연 연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회장단 선거를 거쳐 콘서트에 관한 광범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조현경 기자 <ggle1501@nate.com>

[interview] 라온아띠 of Nueva Ecija를 말하다

지난 6월 2일 본 기자는 라온아띠 of Nueva Ecija가 창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YMCA로 달려가 라온아띠 멤버들에게서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Q1: 라온아띠 of Nueva Ecija가 어떤 단체인가요?

박진영 단원: 현재 Friends of Asia라는 모토아래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라온아띠처럼 16세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라온아띠 필리핀팀이 3달간의 활동 중에 만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스럽게 탄생하였습니다.

조현경 단원: 그리고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자기또래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 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Q2: 왜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활동 하게 되나요?

이수진 단원: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기수를 마지막으로 라온아띠의 Cabanatuan에서의 활동이 종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저희 라온아띠와 현지의 청년들과의 단편적인 관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저희 다섯 명이 귀국 후에도 같은 아시아의 친구로 공유하고 활동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동의 하에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Q3: 멤버들은 어떻게 모집 하였나요?

김이민경 단원: 멤버들의 모집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김, 켈빈, 길버트와 같은 경우는 4월 Valle Cruz의 Day Care Centre에서 진행 하였던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학생이었으며 그 기간 라온아띠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 진행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멤버들 또한 워크캠프 혹은 영어수업을 통해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YMCA youth 멤버 중 일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Q4: 현재 라온아띠 of Nueva Ecija는 어떤 단계에 있나요?

박진영 단원: 6월 환경 캠페인을 첫 프로젝트로 기획 진행 하여 아주 성공적으로 350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있었던 National Arbor day 행사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을 체계화 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재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고 역할을 나누었으며 조직정관을 만들고 다듬는 중입니다.

Q5: 다음 프로젝트로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하시던데 그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조현경 단원: 젊은 친구들이 모인 만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던 중 단원들이 모두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 대중적이라 대부분의 단원들이 기타를 다룰 수 있으며, 게다가 몇몇 단원들의 경우 이미 여러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명도 지난 몇 개월간 필리핀 젊은이들의 삶의 일 부분인 음악 즉 기타를 배우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이라는 젊은이들의 언어를 바탕으로 우리주변의 젊은이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Gising na, Tara na(일어나, 그리고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기획 하였으며, 7월 22일 YMCA 인근의 Wesleyan 대학의 홀에서 열린 예정입니다.

기자 Q6: 그렇다면 라온아띠 필리핀팀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이수진 단원: 현재 저희 팀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귀국 후 라온아띠 of Nueva Ecija의 활동이 중단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단원들과 함께 향후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찾아보는 중이며, 지난 워크샵에서는 단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저희는 라온아띠의 의미와 이를 통한 경험 그리고 박진영 단원과 이상엽 단원은 라온아띠 이전에 대학생으로 주체가 되어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단지 라온아띠 of Nueva Ecija의 지속성뿐 만이 아닌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자세한 답변 감사하였습니다. 라온아띠 of Nueva Ecija의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속적인 활동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특집> Raon Atti of Nueva Ecija

우리들의 뜨거운 밤을 위하여

라온아띠, 콘서트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방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는 상상을 해보라. 상상만으로도 한 낮의 더움은 짝 가시고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음악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시원한 청량감과 자유로움을 한껏 느끼게 해줄 젊은이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라온아띠 누에바에시아(RaonAtti of Nueva Ecija, 이하 라온아띠 NE) 멤버들이다. 창단 1개월 채에 접어들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첫 걸음을 단독 콘서트에서 내딛게 되었다. 카바나투안 YMCA 사무총장 모리또(Morito)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6월 29일 현재 벌써 여러 번의 기획회의를 진행하였다.

오는 7월 22일에 열릴 이번 콘서트는 라온아띠NE의 데뷔무대일 뿐 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라온아띠NE와 콘서트에 참여하는 필리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자 계획되었다.

콘서트 제목은 Gising na! Tara na!(wake up! Let's go!)로 정해져 아직 그들의 참 가치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을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제목을 바탕으로 각 멤버들이 미디어 부(박진영, 이상엽 단원 담당), 무대 디자인 부(이수진 단원 담당), 의상 부(조현경 단원 담당), 멤버 코디네이터(김이민경 단원 담당)에 분산되어 포스터와 티켓, 영상, 유니폼, 무대디자인이 진행 중이다.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라온아띠가 총 8곡(녹색지대-사랑을 할거야, 김연우-유성화원, 자전거 탄 풍경-너에게 난 나에게 넌, 박봄-You & I, 더 클래식-마법의 성, 이승기-Smile boy, MYMP-Nothings gonna stop us, Pinoy ako)을 기타연주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라온아띠NE의 현지 멤버는 나머지 8곡을 맡아 총 16곡의 자신들만의 개성이 담긴 무대를 펼칠 예정이니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나 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일 터, 아마추어로만 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멤버들이 공연 경험은커녕 노래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 이들은 매 주 그들의 연습 영상을 촬영하여 직접 평가하는 등 퍼포먼스에서도 100%의 완벽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합동 연습과정에서 한국단원과 현지단원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등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 단원은 '마지막 프로젝트인 만큼 콘서트 준비는 분명히 힘든 과정이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콘서트까지 남은 시간은 약 20일 남짓.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들의 열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고 있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우리의 목소리가 카바나투안에 퍼지다



지난 7월 7일, 카바나투안 지역 라디오 방송국 DWJJ에 라온아띠가 게스트로 출연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4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여러 생각들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350PPM 캠페인 그리고 7월에 있을 라온아띠 콘서트 홍보까지 무사히 전과를 탔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청취자 분들을 위하여 콘서트 공연 곡 중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열창하기도 하였다. 생애 첫 라디오 출연이 긴장되기도 하련만 긴장된 모습이라고는 없이 노래까지 끝 마치고 부스를 나오는 그들의 환한 미소는 한결 필리피노 다운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게다가 이번 인터뷰에서 이상엽 단원이 그 출중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라온아띠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어 더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Raonatti NE 성공리에 Workshop 마쳐



7월 2일, Raonatti NE가 다 함께 워크숍을 가졌다. 이수진, 조현경 단원과 Raonatti NE의 Efren, Kelvin의 기획아래 진행된 워크숍은 먼저 기존 라온아띠 단원들의 나눔으로 시작됐다. 제일 먼저 이수진 단원이 왜 라온아띠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라온아띠를 지원했었는지, 지금 Raonatti NE가 스스로 하고 있을 질문에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준비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조현경 단원이 과거에 자신은 어땠는지, 그리고 순간의 깨달음으로 지금의 자신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나눔이 이어졌다. 이어서 김이민경 단원은 자신에게 있어 라온아띠는 무엇인지, 그 길을 걸으며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다. 한편, 기타 대외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던 박진영 단원은 젊은이로써 자신이 같은 목적을 가

지고 함께 해냈던 캠페인을 예로 들어 어떻게 캠페인을 펼쳐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소중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경영학도로서 성공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오고 있던 이상엽 단원은 자신이 어떻게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귀중한 전략들을 공개했다. 이 후 Raonatti NE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곳 Cabanatuan City에 대해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지난 350ppm 캠페인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 대해 토론하였으며 앞으로 Raonatti NE를 더욱 조직적으로 만들어 줄 정관들을 결정하였다. 다음 달 8월, 그들은 콘서트 이후 Raonatti NE 만의 첫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자칭 미식가 5형제. 치킨에 도전하다!

타지 생활에서 가장 그리운 것 중 하나는 고향의 밥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떠나 온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든 우리 라온아띠는 어떨까? 한국음식 사진들을 찾아보며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할까? 대답은 절대 아니다! 원하는 한국 음식은 푹푹푹 잘 해먹는 자칭 미식가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김치찌개를 필두로 김밥, 주먹밥, 제육볶음, 삼겹살, 비빔국수 그리고 홈메이드 피클까지. 원하면 무조건 해 먹는 그들이 이번엔 치킨에 도전하였다!

본래 필리핀에 온 이후로 거의 매일, 3시 세끼에 모두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가 유일한 반찬으로 나온다. 그러나 질릴 법도 한 이 식단에서 치킨은 항상 환영 받는 존재이다. 그러나 누가 그랬던가 치킨은 양념치킨이 제 맛, 떠오르는 치킨 계의 새 역사는 역시 파 닭!. 그들은 양념치킨에 대한 그들의 식욕을 주체할 수 없어 직접 닭을 사와 손질하고 튀김 옷을 정성스레 입혀가며 그렇게 약 두 시간여에 걸쳐 그들의 치킨 3종 세트를 완성하였다. 그렇게 원하던 양념치킨부터 새로운 제왕 파 닭까지, 그리고 현지 직원들을 위한 후라이드 치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만들어진 이 치킨은 하늘이 질투 했던 것일까, 일등 주방장 역할을 맡은 이상엽 단원의 미각을 빼앗아 가버려 간 조절에 실패, 한 입 먹는 순간 물 1.5L는 그냥 들이키게 된다는 마법의 치킨이었던 것이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그래도 요리하는 순간에는 행복했었다고 쓴 웃음 짓는 그들의 뒷모습이 당장 내일인 입영통지서를 받은 쓸쓸한 남자의 모습 같아 아련하기만 하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새벽 2시 40분, 내가 아직도 깨어있는 이유

나의 10대는 방황 그 자체였다. 내 나이 15세 때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선도 차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은 행실이 불량한 학생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나는 항상 학생부 선생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오죽하랴. 부모님께 연락도 없이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고 공부는 뒷 전이었으니 성적은 바닥을 쳤다. 커다란 못을 부모님 가슴에 쿵쿵 박아 넣으면서 꿈 꾸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길거리에 허비하였었다. 나의 어머니는 선생님이로써 그리고 어머니로써 나를 제자리에 돌려 놓고자 무던히도 노력하셨다. 한번 매를 드셨다 하면 내 스스로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어쩔 때는 당신의 경험을 나에게 들려주기도 하셨다.

그래도 그 때는 몰랐다. 친구들과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던지 부모님의 말씀은 ‘간섭’이라는 단어로 치부해 버리고 내 스스로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꿈도 없었고 그냥 놀고 싶었던 게 다였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고 그 순간 나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멧했다. 그때부터 나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무난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대학에 진학하였다.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내가 자랑스럽고 또 부럽다고 말씀하신다. 장학금도 받아보고 해외 여행도 여러 번, 그리고 2000여명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고 중학교 때의 나라면 꿈도 못 꾸었을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바로 라온아띠이다.

결코 흔하지 않은 이 자리는 나에게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젊다’는 것이었다. 이 곳에서는 모든 순간이 ‘젊음’을 치하한다. 청년들의 가능성, 청년들이 가지는 역할,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변화의 기회 등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프로젝트 조차도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매 순간이 젊음이 무언지, 내 젊음은 어떤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내 젊음은 단조로웠던 것 같다(비록 10대는 화려했을지라도). 대학 진학 후 매일이 치열했다. 더 나은 학점,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레포트와 발표준비, 그리고 시험에 치여 살았다. 매일이 바쁜 생활이었지만 돌아보면 열정은 없었다. 그저 막연한 미래, 누구나 생각하는 평범한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난 수많은 내 또래 친구들을 보며 그들 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냥 허비한 나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스러웠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다. 내가 가진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는 앞으로도 무한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할 수도, 해외에서 더 큰 경험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처럼 자원활동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직업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 더불어 이런 외적인 기회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다양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열정 있는 사람인 ‘척’, 척쟁이가 되는 건 싫다. 뜨겁게 먹고 뜨겁게 마시고 뜨겁게 공부하고 뜨겁게 운동하고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그 만큼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내 젊음을 보낸다면 훗날 나이가 들어 이 순간을 기억할 때 ‘정말로 젊었다’라고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기회는 지금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깨어있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나는, 우리는 아직 젊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젊음을 100% 보여주지 않았다. 누가 그랬던가,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젊음 속에 가득하다고. 게다가 젊음은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한한 것이다. 나는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젊음에게 외치고 싶다.

같이 즐기자. 그리고 느끼자.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새벽 2시 40분. 마지막 라온아띠 보고서를 위해 이 밤을 하얗게 불태우고 있는 나는 정말로 젊은 청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다^^)

조현경 기자<ggle1501@nate.com>

At first I was shy to talk to the Raonatti member because I'm afraid when they talked to me. Cause I'm not that good in English. Every morning they keep saying Magandang Umaga po(Good morning) or anyong when we had a small conversation to the Tin-tin(Kimlee Minkyung) talk to my friend abby them they sad Mainet(hot) so abby suggested it they want a swimming, then they agree with that. When they teaching us Taekwondo I was shy to them, because that my nature when they're not yet comes to our life. My first impression to Jay(Park Jinyoung) is Masungit(Unfriendly) they didn't like us hahaha but I was wrong. Jay is a good person. When they doing the Teakwondo dance I said Lohan(Jo Hyunkyung) is good Taekwondo and the the rest was so great they're all kind. They're not only Feed us food but they feed us a good lesson "Don't be shy when you're doing the right thing" This phrase leave a mark in my life and I can use it when I met new people on person, thanks a lot.

GILBERT T. GONZALES ☺
(MEMBER OF RAON ATTINE)

꽃처럼 짧고, 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청춘의 어느 날

거의 네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서 문득 나에게 라온아띠는 무엇이었는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을까? 사실 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 도움 혹은 호의가 필요한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짧아질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운 20대에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었다.

만약 내가 이 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어떨까? 난 이미 취업한 다른 내 친구들처럼 일을 하고 있을지도, 혹은 나를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 줄 여러 가지 자격증과 인턴쉽 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3때 그토록 꿈꿔왔던 대학 생활과 내 미래를 좀 더 순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수많은 기회들 역시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20대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라온아띠. 난 내가 할 활동들이 분명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했기에 라온아띠를 선택했다. 내가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난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자원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늘어 놓는 누군가의 낯두리, 도움 안 되는 걱정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예상과는 달랐던 터무니 없는 결과들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감히 실패도 해보면서 배워나가고 성장해 가는 거라 생각하며 ‘난 할 수 있다.’ 아니지, ‘우린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른 길로 맞춰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멈추지 않았다. 너무 든든했다. 우린 젊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와 열정이라는 튼튼한 갑옷을 갖췄고 게다가 우리는 한 목표를 위해 달려온 다섯이기에…… 결국에 난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고 지금 나는 그 의미 있는 것들의 가치를 썰 수도, 비교할 수도 셀 수도 없게 되었다.

사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쯤은 그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회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 값진 기회를 물질적인 잣대로 재려 들고 대개 투자할 가치가 더 나간다고 생각되는 일에 목을 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회들을 그냥 보내 버린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젊음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썰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자산이다. 그러나 신은 마치 젊음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남용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고도 없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 버린다. 아마 신이 그것을 도로 가져가는 그 시점은 정확하게도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점일 것이다. 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 라온아띠는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난 그것을 내 인생에 단 한번 주어진 가장 아름답게 치열할 수 있었던 한 때 라고 답할 것이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I'm very Masaya(나는 너무 행복해)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세계 여러 곳을 돌며 일하면서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필리핀에서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거침없이 내던지는 저보다도 한참 어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바라 보게 됩니다. 열여덟 그리고 스물하나의 나이에 집안 사정과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아이들이 뜨겁다 못해 타 들어 가는 태양 아래 땀을 뻘뻘 흘려가며 차비를 마련하고 매주 자발적으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찾아 온다는 것을. 그렇게 한번 그들이 왔다 가면 콘서트 준비로 인한 막막함, Day Care Centre 뒤로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 집 앞 담벼락에 쌓였던 물이끼도 한 여름 밤의 시원한 기타 소리와 함께 다 증발해 버립니다.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비록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같이 뭉치면 두려울 것 없는 오래된 고향 친구 같습니다.



오피니언

이제 어느덧 필리핀의 생활도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운이 좋게도 마지막 정리를 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았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봅니다. 등쪽에 Friends of Asia라는 커다란 글씨를 새기고 여기 저기 정말 엄청나게도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돌아 다녔지만 몇 달 동안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었던 것 같았고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녀석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서야 이 녀석들을 만나게 되고 친해져 단체 티셔츠를 당당히 입을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어느덧 달력에 동그라미 그려진 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녁 이었습니다. 그 중 한 친구와 저녁에 잠깐 음료수를 사러 집 근처 구멍가게를 가다가 친구가 무심결에 짧은 한 문장을 내뱉습니다. "I'm very Masaya" 이 한마디가 왜 저를 무한히 행복하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길고도 뜨거웠던 여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The End